

2020.11 김인자 선교사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팔의 김인자입니다.

코로나 19이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긴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코로나를 피하는 방법이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예배 역시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고 산간지역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가 멈춰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기독교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입니다^^

저는 네팔의 록다운이 오고 집에서 지내면서 여러가지 계획들이 떠올랐지만 두가지만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건강관리였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었지만 보류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3일 금식을 두번이나 했네요. 그런데 금식을 마치고 나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코로나로 마니 어려운 네팔을 위해 구호금이 왔습니다. 그것도 30만원, 60만원... 처음엔 저의 계획에 없던 일이라 당혹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로 구호품을 사서(쌀, 콩, 콩기름등) 현지 목사님을 통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후원금이었지만 선뜻 큰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전체 구호금이 6백여 만원이거나 되었습니다.

구호대상은 빈민가와 교단(코이노니아 교단 90여개 교회있음)를 통해 고아와 과부들, 청년들을 위해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빈민가는 직접 구호품을 사서 나누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곳은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에게 잘 전달 될까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믿고 후원금을 보내 주었듯이 너도 믿고 전달하며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즐건 맘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여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속히 백신이 나오고 세계가 안정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몇자 적어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스도안에서 기도가운데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네팔에서 김인자 올림

